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4.12.12.(목) 14:00	배포	2024.12.12.(목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 장	최승록	(02-3145-8129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규현	(02-3145-8121)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 장	정윤미	(02-3145-8285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동균	(02-3145-8526)

**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,500만원 지급하고,
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규모 확대 추진**
- 불법사금융, 유사수신 등 **불법 금융행위**는 **금감원(☎1332)**에 **적극 신고**하세요!!

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은 **불법사금융, 유사수신** 등 **불법 금융행위**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「**불법금융 파파라치**」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,
 - 금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**21명**의 **제보자**를 선정*하여 **총 8,500만원**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(12.12. 포상식 진행)
 - * 최우수 1명, 우수 7명, 적극 6명, 일반 7명
- **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**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,
 - **불법 금융행위 척결**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**적극적인 제보**가 중요하므로,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**금융감독원(☎1332)**으로 **신고**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**인당 최대 포상금액**을 **증액**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,
 -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·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.

I 개요

-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, 유사수신,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*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*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'16.6월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제도 도입 후, '23년 말 까지 총 15회에 걸쳐 6억 6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

- 최근 ①서민·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, ②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, ③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건들이 있었으며,
 - 이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건을 대상으로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.

II 포상 행사 내용

- (포상식 일시 및 장소) '24. 12. 12.(목) 15:00, 금융감독원*

* (주요 참석자) 금융소비자보호처장, 불법사금융대응1·2팀장, 포상대상자 등

- (심사대상 및 항목) 금융감독원이 제보자(또는 피해자)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*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(경찰 등)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,

* 투자계약서,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(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)를 제출

-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 내용의 완성도, 예상 피해규모,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.
- (선정결과)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였으며,
 - 최우수 1명(10백만원), 우수 7명(총 50백만원 = 3명 x 각 10백만원 + 4명 x 각 5백만원), 적극 6명(총 18백만원 = 2명 x 각 5백만원 + 4명 x 각 2백만원), 일반 7명(총 7백만원 = 7명 x 각 1백만원) 등 총 21명에 8,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선정 결과

(단위 : 명, 만원)

구분	등급	최우수		우수		적극		일반		합계	
	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
유사수신		-	-	3	3,000	2	1,000	-	-	5	4,000
불법 금융투자업		1	1,000	3	1,500	-	-	3	300	7	2,800
불법사금융*		-	-	1	500	4	800	4	400	9	1,700
합계		1	1,000	7	5,000	6	1,800	7	700	21	8,500

* 미등록 대부업, 불법 채권추심 등

III 향후 계획

□ 12.12.(목)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,

-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·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·신고*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*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」 및 인터넷 「불법금융신고센터」에서 제보·신고 가능

□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*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,

* 예 :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의 최대 포상금액 1천만원에서 2~5배 증액

-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·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.

※ (붙임 1) 주요 불법 금융행위 제보사례

(붙임 2) 불법 금융행위 피해 제보·신고 방법 등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 1 주요 불법 금융행위 제보사례

◆ 아래의 제보사례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

1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

◆ 불법대부업자 A는 인터넷 대출카페 등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서민·취약계층 등 대출희망자를 유인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을 실행

인터넷을 통해
광고하여
대출희망자 유인

- 피해자 B는 생계비로 쓸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A에게 연락하여 고금리의 비대면 대출*을 진행함

* 20만원 대출, 38만원 상환

☞ 실제 이자율 : 이자(18만원)÷대출원금(20만원)÷대출기간(7일)×365일 = 연 4693%

불법대부계약을
권유·체결

- 이 과정에서 불법대부업자 A는 피해자 B의 가족(자녀 포함), 친구, 직장동료 전화번호를 받아감

폭언 및 협박을
수반한
불법추심

- 피해자 B는 몇 차례 대출을 이용하였으며, 이후 일부 연체가 발생하자 불법대부업자 A는 지속적인 전화, 문자로 피해자 B 및 가족 등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

☞ 피해자 B씨는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납부하였음에도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당하자 금감원에 신고

금감원에 신고

2 신기술 유망 사업 빙자 유사수신 사기

◆ 제보자 C는 '22년 D업체 대표이사 E로부터 동 업체가 신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며,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

신기술을 보유한
유망한 업체라며
투자자 모집

- 또한, D업체는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며, 상장 후 수십 배로 주가가 올라 원금이 보전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를 현혹

원금보장 및
고수익 실현이
가능하다고 현혹

- 이 과정에서 E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, 제보자 C에게 투자금 모집 시 1명당 7%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권유

지인 소개 시
추천수당 지급한다며
투자자 모집 권유

☞ 제보자 C씨는 D업체가 사업의 진위여부와 무관한 서류 등을 제시하고, 나스닥 상장에 대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품어 동 업체를 검토해 본 결과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막고자 금융감독원에 제보

사업의 건전성을
의심하고
금감원에 제보

◆ 피해자 F는 '24.3월경 급등주를 추천해준다는 리딩방 문자를 받고 하단의 접속 링크를 클릭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	리딩방 문자를 통해 채팅방 입장
○ 채팅방에서는 해외 금융사 G업체 대표를 사칭한 H가 주식을 추천하면서 G업체 계좌를 통해 일평균 10% 이상의 투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고, 수익 인증글이 수차례 올라오자 F는 H를 신뢰	해외 금융사 사칭, 수익 조작을 통한 신뢰 형성
○ H의 매니저는 G업체의 계좌 사용을 위해 주식거래 앱(가짜 MTS)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,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할 경우 수익률이 300% 이상이라고 현혹하였으며, F는 앱을 설치해 투자금을 입금	가짜 MTS 설치 유도 및 공모주 투자 권유
○ 이후 큰 수익을 거둔 F가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H는 세금,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며 출금에 응하지 않음	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납입 요구
☞ 피해자 F씨는 추가 납입을 했음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자 불법 금투업자로 의심하고 금감원에 신고	금감원에 신고

붙임 2 불법 금융행위 피해 제보·신고 방법 등

1 신고요건

- 유사수신·전기통신금융사기·불법 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(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)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*를 첨부하여 신고

*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

-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함을 유의

2 신고방법

가. 인터넷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사금융신고센터' 또는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

- ①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유사수신,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신고·제보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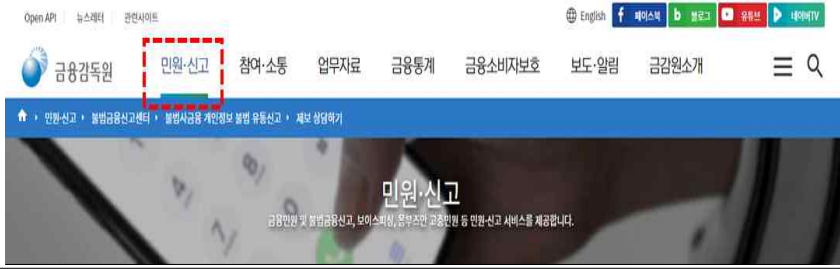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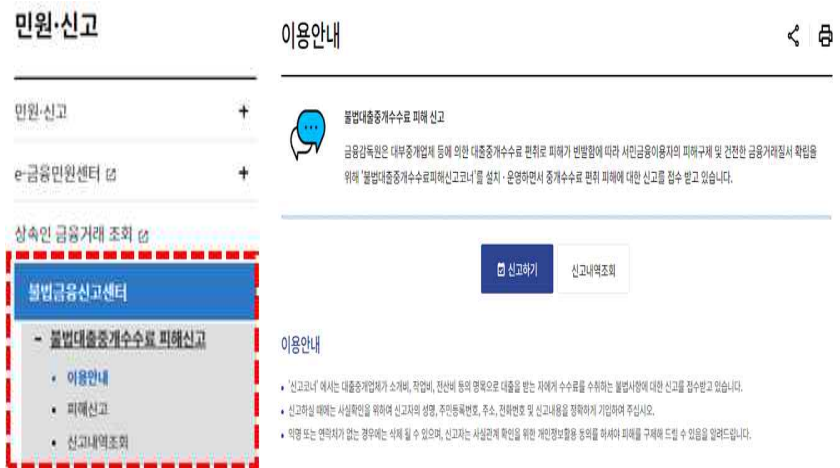
* [유사수신] 투자설명회 자료, 투자계약서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[불법 대부업] 금전차용증서 등 대부계약서 일체, 채권자 인적사항, 녹취록 등
[불법 채권추심] 녹취록, 채권자 인적사항, 채권자 대화내역 등

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spam.kisa.or.kr)로 신고

- ②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·제보*

* 혐의자 인적사항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
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內 신청 화면

<p>❶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fss.or.kr > 민원·신고)</p>	
<p>❷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</p>	
<p>[유사수신·불법대부업 제보]</p> <p>❸ “다음” 클릭</p> <p>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본인인증후 “다음 단계” 클릭</p> <p>❺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“등록” 클릭</p>	
<p>[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]</p> <p>❸ “신고하기” 클릭</p> <p>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본인인증후 “다음 단계” 클릭</p> <p>❺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“등록” 클릭</p>	

나. 유선신고

☐ 금융감독원 공식 전화번호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